

韓醫科大學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原典學 논문작성 교수법의 효과 고찰

慶熙大學校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教室¹ · 釜山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²
蔡 한¹ · 申尙玟² · 張祐彰¹ · 白裕相^{1*}

Review on Teaching the Traditional Korean Medical Students with Article Writing Program

Chae Han¹ · Shin Sang-woo² · Jang Woo-chang¹ · Baik You-sang^{1*}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²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Oriental Medicin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iveness of article writing as a mean to teaching the traditional medical classics. We used questionnaire to evaluate the usefulness of the curriculum, reason for difficulty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The creative and reasonable thinking was the major reason for difficulty, and this article writing program could be a proper methods to tackle this. We also found that the educational system was not satisfactory since other educative programs were not focusing on this issue.

This study showed that this article writing program can be a useful teaching tool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raditional medical classics curriculum after several improvements such as more personalized guidance and understanding of anatomy of an article, lesser time burden and easier database access.

Key Words : Curriculum development, traditional Korean medical classics, Oriental Medical Classics, article writing program

I. 서론

原典學 과목은 주로 한의학의 기본 텍스트인 『黃帝內經』을 학습 대상으로 하여 텍스트 순서에 따라 강독, 해석하는 전통적 교수방법을 유지해 왔다. 전

통적인 원문 강독 방법이란, 읽고 해석하며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 설명하고 필요한 부분의 암기를 병행하는 것으로서¹⁾, 여기서 말하는 해석이란 한문 형

* 교신저자 : 白裕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전화 : 02)961-0326. E-mail : baikys@khu.ac.kr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1. p.309. “誦而頗能解, 解而未能別, 別而未能明, 明而未能彰, 足以治群僚, 不足至侯王, 願得受樹天之度, 四時陰陽合之, 別星辰與日月光, 以彰經術, 後世益明, 上通神農, 著至教, 疑於二皇.”

식을 우리말로 옮기는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설명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학생에 대한 평가 또한 강의 형식과 마찬가지로 암기, 해석, 논술 및 구술시험 등으로 구성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 방식의 원문 중심 교육의 장점은, 비교적 단기간에 텍스트의 내용을 습득시키고 원문 속에 담긴 저자의 생각과 느낌을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한의학의 철학적 사유체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 전달과 단순 암기에만 지나치게 치우칠 경우에는 원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기보다는 피상적인 내용과 원문의 무조건적인 암기에 그치게 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입학하는 학부생들은 무조건적인 암기 위주 학습에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학업에 흥미를 잃게 되어 집중력과 효율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졸업 후 사회 여러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는 실용적인 내용의 선행 교육을 요구하는 추세가 점점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개발, 수정,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²⁾³⁾.

原典學 과목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변화된 교육 방법으로는 우선 활용하고 있는 텍스트의 편제를 조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부터 만들어진 전국 원전학 공동교과서는 類編⁴⁾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소주제별로 필요한 부분의 텍스트를 발췌 수집함으로써 강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온전한 원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용의 흐름이 단절되고, 의미의 차이가 있는 문장들이 불완전한 상태로 결합함으로써 부조화를 이루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강의 텍스트의 형식적 변화는 아직까지 실험 단계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BL(problem-based learning)⁵⁾을 原典學 강의에

도입하는 문제도 이미 어느 정도 충분한 한의학 지식을 습득한 고학년 학부생들의 경우에는 보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으나, 저학년에서 『黃帝內經』의 내용을 처음 접하게 되는 학부생들의 경우에는 텍스트 위주의 강독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선 텍스트 강독을 진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교수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통적 교육 방법이 갖는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原典學 교육에 논문 작성과 발표의 형식을 도입함으로써 텍스트에 대한 자율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동시에 PBL이 가진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개발의 장점을 살리고자 하였다. 논문작성 과정은 주제 선정 및 가설 설정, 자료추적 및 분석, 고찰 및 결론 도출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⁶⁾, 原典學 과목의 경우 이미 풍부하게 축적된 문헌자료와 관련 논문 및 저서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제선정 및 가설 설정 단계에서 많은 사고 실험을 거치면서 창의적으로 문제점을 정립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트레이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개인 창작 과제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예비 단계의 의미를 지니도록 하였다. PBL 또는 맞춤형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인프라와 인력 등이 지원되어야 하나, 이러한 조건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 속에서는 역으로 교육 과정의 혁신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수요 및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原典學 과목에 있어서 개인 논문작성 교수법을 시행한 후 학생들의 선호도와 난이도, 수업 진행 형식 및 과제 평가에 대한 의견, 개선 방향 등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고찰한 것이다. 논문 작성 교수법이 향후 미래지향적인 原典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효과

2) Evidence Based Medicine Working Group. Evidence-based medicine: a new approach to teaching the practice of medicine. JAMA. 1992. 268. p.2420-2425.

3) 맹광호. 21세기 한국 의학교육계획-희망과 도전. 한국의학 교육. 2004. 16(1). pp.1-11.

4) 全國韓醫科大學原典學教室. 類編黃帝內經. 大田. 周珉出版社, 2005.

5) 김선. 국내외 의학교육 학회지를 통해 본 의학교육 연구의 동향. 한국의학교육. 2004. 16(2). p.109-117.

6) 채한, 이수진, 장정희, 신상우. 한의과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영문 의학논문 교육의 효과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2007. 28(1). pp.94-104.

적인 하나의 교육 방법으로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며, 본 연구가 이러한 방법을 좀 더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II. 本 論

1. 대상 및 방법

原典學 과목은 한의학의 최고 원리서인 『黃帝內經』의 내용을 원서를 중심으로 학습하여 한의학의 이론체계를 확립하고 한의학 관련 원문 해석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학습목적으로 하여⁷⁾, 현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커리큘럼 상 예과2학년 2학기과 본과1학년 1학기의 2학기에 걸쳐 일주일 6시간 3학점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2009학년도부터는 본과 1, 2학기로 옮겨 시행될 예정이다. 강의는 일주일에 3시간씩 2회 실시하며 학생 수는 학기별로 정원 120±10명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논문작성 방식의 교수법은 2006년 1학기부터 시행하였다.

강의는 전국 한의과대학 공통 교재인 『類編黃帝內經』의 내용을 강독하였으며, 논문 작성은 중간고사 이전 2회, 이후 2회 등 총 4회를 실시하였다. 논문 주제의 선정은 강의의 내용과 연결하여 광범위한 주제 속에서 소주제를 본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실제 4회의 논문 작성에 있어서는 五臟辨證, 氣味論, 衛氣營氣 및 자유 형식의 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출한 자유 형식의 논문은 ‘질병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 하에 자유롭게 제목을 선정하여 Essay 형식으로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독자들에게 얼마나 호소력 있게 표현하는가 하는 인문사회학적 소양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첫 논문의 경우 작성하기 이전에 논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후에는 주제선정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형식적 구조에 익숙해진 것을 보고 논문 작성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논문 계획서는 이름, 학번, 제목, 주제 설명, 연구의 필요성, 연구 방법, 기

대효과, 주요 참고 문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다. 강의 첫 주에는 논문 작성 교수법의 필요성, 논문의 형식과 내용, 작성 방법, 기대 효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논문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수정 보완을 거쳐 논문의 제목을 확정하였다⁸⁾.

논문을 보고받은 이후에는 정독을 거쳐 평가서를 작성자에게 보내어 필요한 경우 수정, 보완하도록 하였다. 논문 평가서는 이름, 학번, 제목의 기본 정보와 내용 분석 평가 등급, 평가 점수, 논평 등을 기재하였다. 내용 분석은 주제의 독창성, 내용의 논리성, 인용의 객관성, 형식의 구비성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 표기를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논평을 통해 기술하였다. 평가 점수는 A는 15점, B+는 12.5점, B는 10점, C+는 7.5점, C는 5점, F는 불합격, 기타는 수정 면담 및 제출 등으로 나누었으며, 실제 각 논문 제출 시 수정 보완의 판정을 받은 비율은 평균 90%내외였다. 평가에서 F 또는 C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별 면담을 통하여 주제 선정과 작성 요령에 대하여 지도하였다. 중간고사 이후로는 강의 시간 중 약 1시간 정도를 할애하여 2명 정도의 우수 작성자들에게 논문 발표를 시키고 학생들의 질의를 받는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다.

논문 작성을 총 4회를 실시하여 60점 만점으로 합산하였고 여기에 기타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시고사, 출석을 합산한 40점으로 더하여 원전학과목의 최종 점수를 산출하였다. 논문평가의 점수 비중을 높인 이유는 처음 시행되는 교수법인 만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였으며, 향후 이 방법이 정착이 될 경우에는 평가 점수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교수법의 효과분석을 위한 무기명 설문조사는 原典學을 수강하였던 본과 1학년 120명을 대상으로 강좌가 종료된 지 2학기 이후에 실시되었으며, 설문은 강좌의 유효성, 체감 난이도와 개선점 등에 대한 24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첨부). 설문에 대한 응답은 SPSS 13.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를 사

7)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의과대학학습목표·기초의학편. 서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2007.

8) Trisha Greenhalgh. How to read a paper: the basis of evidence-based medicine(3rd Edition). Blackwell Publishing. 2006.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문항에 따라 중복 응답)은 빈도분석을 통해 빈도 및 유효비율(%),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원인에 따른 응답난이도(평균±표준편차)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상관분석을 통해 논문과제 평가방식의 구체적인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2. 결과

수강자 120명 중 110명의 설문을 수거하였으며,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3.84±3.53세로서 남성의 비율이 60.77%(79명)이었다.

본 강좌에서 시도한 ‘논문작성 및 평가’가 창의력과 논리력 개발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맞춤식 교육이라는 목표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질문 A1)라는 질문에 대해서 7.75±2.00라고 응답하여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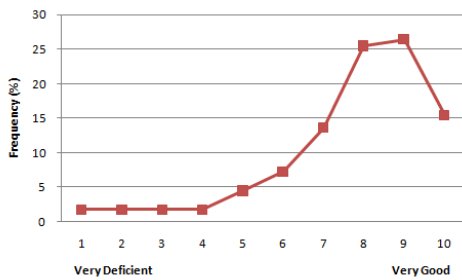


Figure 1. Implementation of class goals. 92.73% of the students were satisfied with this article writing program.

1) 난이도 평가

강좌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는가(질문 A2.1)에 대해서는 주제선정(64.81%)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관련자료 확보 및 정리(19.44%), 논리적 서술(14.81%), 형식을 갖추(0.93%)이라고 답하였다. 이에 가장 어려웠던 점에 따른 각 원인별 난이도 점수(질문 A2.1, A2.2)를 일원분산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창의적 주제선정(F=17.57, p<0.001)과 논리적 서술(F=3.54, p=0.002)에 있어서 원인별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일부에서 2 이하의 빈도를 가지고

있기에 사후분석을 실시할 수는 없었다(Figure 2). 창의적 주제선정이 가장 어렵다고 대답한 그룹에서만 창의적 주제선정>충분한 자료확보>논리적 서술>논문형식의 갖추 순서대로 난이도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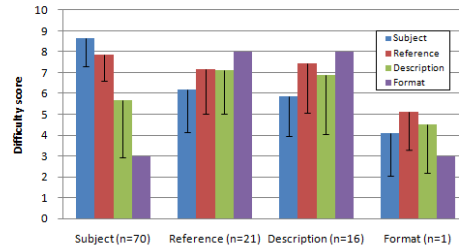


Figure 2. Difficulty score profile by major reason. The difficulty reasons were in order of "creative subject selection>enough reference>rational description>proper format".

이에 창의적 주제선정 및 충분한 관련 자료의 확보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을 찾아보기 위하여, 논문의 주제 선정이 너무 좁거나 넓지 않았는가(질문 A3.1) 혹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DB를 어느 정도 활용하였는가(질문 A4) 질문하였다(Figure 3). 주제선정의 범위에 있어서는 43.87%가 적절하다고 대답하였는데, 적절하지 못했던 이유(질문 A3.2)로서는 주제선정에 필수적인 사전 전공지식의 결여가 제시되었다.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에 있어서는 7(20.00%), 8(28.18%)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잘 활용되었을 것이라 사료되나, 학교 DB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질문 A4.1)에 대한 응답을 볼 때 사용법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보충되어야 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교육 내용

논문작성에 대한 취지, 자료 및 서술방법에 대한 소개가 충분하였는가(질문 B2.1)에 대해서는 4(25.93%), 5(18.52%), 6(32.41%)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개별 논문에 대한 평가와 수정지도가 충분하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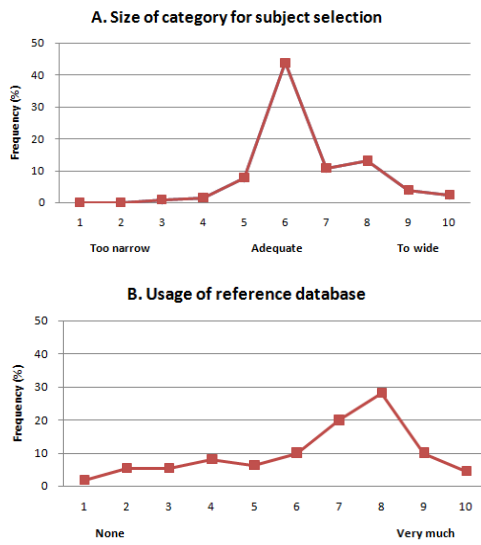


Figure 3. A. Size of category for subject selection. B. Usage of reference database. The answers scored as adequate in subject selection was 43.87% and 48.18% of students responded as 'using well' for the reference database.

가(질문 B2.2)에 대해서는 6(37.6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평가 점수가 논문 내용에 비추어 합리적인가(질문 B6)에 대해서는 6 이상의 응답이 71.0%를 차지하고 있었다(Figur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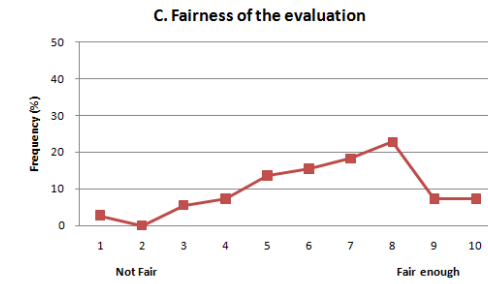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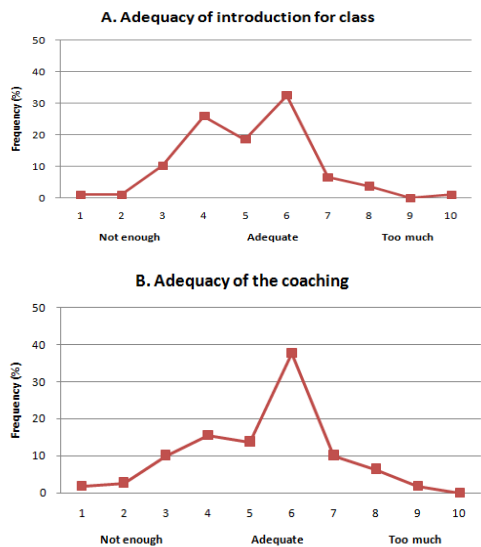


Figure 4. A. Adequacy of introduction for class. B. Adequacy of the coaching. C. Fairness of the evaluation. Students responded as satisfied in general with the program itself.

자유로운 칼럼 작성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던 에세이 작문의 필요성(질문 B4)에 대해서는 5이상의 응답이 68.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발표력과 청자의 이해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논문 발표의 효용성(질문 B5)에 대해서는 5이상의 응답이 68.2%를 차지하고 있었다(Figur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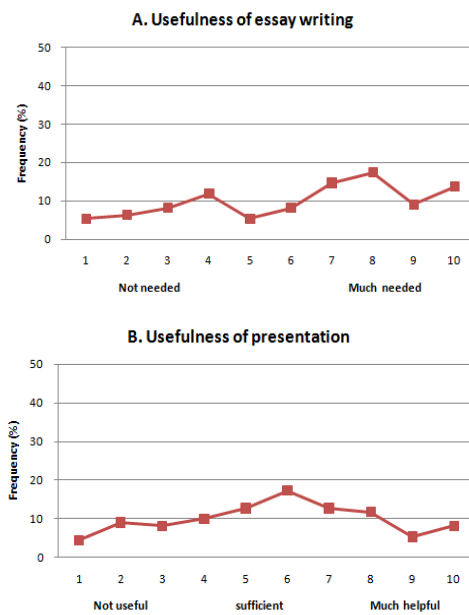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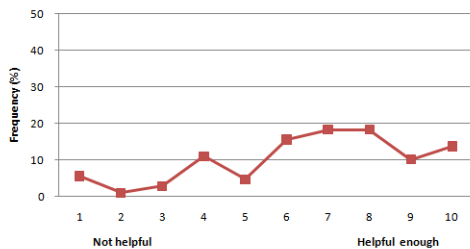
Figure 5. A. Usefulness of essay writing. B. Usefulness of presentation. The response over than 5 scored as 68.2% for each.

논문 1편의 작성에 사용한 시간(질문 B1)에 있어서는 주제 선정에 14.85±23.06시간, 자료수집 및 정리에 13.30±16.43시간, 내용 서술에 10.81±9.92시간, 편집 및 마무리에 3.43±3.04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제 선정>자료수집 및 정리>내용서술>편집과 마무리의 순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과 동시에 개인적인 편차 또한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학기에 작성하는 적절한 논문 편수(질문 B3)에 대해서는 1편(7.27%), 2편(29.09%), 3편(42.73%), 4편 이상(20.91%)로 응답하여, 3편 이상이라는 응답이 63.64%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3) 논문과제 평가방식의 유용성

본 연구의 교수법이 개인적 공부에 도움이 되었는가(질문 C3.2)에 대하여 6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75.5%로 나타났다. 개인적 공부와 도움이 되었는가(질문 C3.2)와 논문과제 평가방식의 필요성(질문 C1.1)간 밀접한 관련성(pearson correlation=0.63, p<0.001)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문과제 평가방식이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는데, 이러한 것은 논문과제 평가방식의 필요성(질문 C1.1)과 논문작성 과정에서 유의했던 점(질문 C3.1)에 대한 답변에서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논문과제 평가방식의 시행 시기(질문 C2)에 대해서는 첫째 학기(19.63%), 둘째 학기(52.34%), 두 학기 모두(28.04%)로 나타나, 시간적 부담과 학문적 미성숙으로 인해 두 번째 학기에만 실시하는 것을 가장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도움이 되었는가(질문 C3.3)에 대해서는 문장서술능력(17.27%)를 제외하고 모두 40%이상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6).

A. Usefulness for self-study



B. Specific area which is helpf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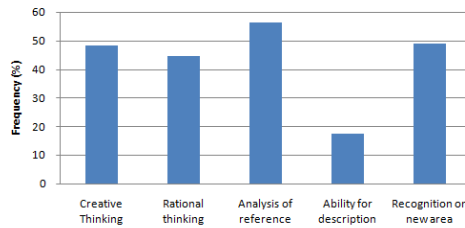


Figure 6. A. Usefulness for self-study. B. Specific area which is helpful. We found that 75.5% of students responded as more than 6 which means this program is a good model for boosting self-study. This program is also helpful for improving creative thinking, rational thinking, analysis of reference and recognition on new area.

4) 개선 방안

논문 작성법 강의 및 예시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첨삭지도의 양을 늘리는 것 등이 제시되었다.

III. 考 察

현재 한의학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밖으로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세계 의학의 흐름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한국한의학의 정체성을 적절히 유지해 나가야 하고, 안으로는 다양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복합 또는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가장 전통적 교육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原典學 과목 또한 다른 한의과대학 교과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수법을 시도하고 이를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⁹⁾¹⁰⁾¹¹⁾.

9) 이봉효, 채한, 권영규. 한의대 학부학생을 대상으로 한 침시술과 감각생리의 통합실습모델 개발. 대한한의학회지. 2007. 28(3). pp.173-182.
 10) 이수진, 박수잔, 신상우, 채한. 한의과대학 학부생을 위한 보완대체의학 교육과정 개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8. 29(1). In Press.
 11) 나승일.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교수법 가이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본 연구에서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原典學 과목을 강의하면서 병행하여 시행하였던 논문작성 교수법에 대하여 학생들의 선호도와 난이도, 작성 방식 및 평가에 대한 의견, 개선 방향 등을 분석함으로써 논문 작성 교수법이 향후 原典學 과목의 교육방법으로서 어느 정도의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논문작성 교수법을 시행하고 난 직후의 시점에는 과제 작성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감이 컸었고 原典學 과목의 첫째 학기로서 아직 과목이 종료되지 않아 설문조사에 대한 영향의 우려가 있어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2학기가 지난 후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를 분석해 보면 우선 전체적인 평가에서 논문 작성 교수법이 대체적으로 창의력과 논리력을 향상시키는 목표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세부 난이도 평가에서는 주제 선정이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선택하였는데, 논문의 세부 주제를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 상황에서 창의적인 내용을 스스로 만들어내기가 실제로는 힘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제 선정에 있어서 아직 한의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시기에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며, 논문의 주제 선정이 곧 그 속에 가설 설정과 논리적 뒷받침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일반 연구자의 논문 작성에 있어서도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다. 주제선정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선정할 그룹 중에서만 세부 난이도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주제 제시 범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가 적절하다고 대답하였고 나머지는 넓고 좁음에 비슷하게 분포하였으며, 학교 DB 활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활용한 경우가 우세하였다.

교육 내용에 대한 질문 중 논문 작성 방식 및 평가에 있어서 작성 시간은 개인적 편차가 심하나 대략 세부 작성 과정 당 절대 시간으로 10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며, 한 학기에 적절한 논문 작성 편수는 3편 정도이고 두 번째 학기에만 시행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는 아직 학문적 성숙도가 낮고 시간적 부담을 의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논문 작성법에 대한 사전 설명과 평가, 수정 및 점수 산정 등에 대해서

는 비교적 합리적이었다고 보았으며, 자유로운 칼럼 작성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던 Essay 형식의 논문작성과 강의 시간 논문 발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큰 선호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운용상의 미비로 인하여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이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논문 과제 평가방식의 전반적인 유용성 질문에 대해서 개인적 공부에 도움이 되었는가와 논문과제 평가방식의 필요성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개인적인 만족도와 실질적인 능력의 향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능력 향상 항목에서는 대부분 40% 이상에서 도움이 되었으나 문장 서술 능력에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의과대학 교육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며 이는 현재 일반 대학 교육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 할 것이다. 창의적 논리적 사고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볼 때, 지금까지 교육 현실에 있어서 이러한 학생들의 욕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강의 형식을 개선하고자 논문작성 교수법을 시행한 뒤에 이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여 그 효과와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본 프로그램에 대하여 학생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추후 이와 같은 논문 작성 교수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DB 검색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시간적인 부담감을 조금 줄이고 논문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개별지도를 시행해 나간다면, 원전학 과목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교육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參考文獻

<논문>

1. 김선. 국내외 의학교육 학회지를 통해 본 의학교육 연구의 동향. 한국의학교육. 2004. 16(2). pp.109-117.
2. 맹광호. 21세기 한국 의학교육계획-희망과 도전-. 한국의학교육. 2004. 16(1). pp.1-11.
3. 이봉효, 채한, 권영규. 한의대 학부학생을 대상으로 한 침시술과 감각생리의 통합실습모델 개발. 대한한의학회지. 2007. 28(3). pp.173-182.
4. 이수진, 박수잔, 신상우, 채한. 한의과대학 학부생을 위한 보완대체의학 교육과정 개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8. 29(1). In Press.
5. 채한, 이수진, 장정희, 신상우. 한의과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영문 의학논문 교육의 효과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2007. 28(1). pp.94-104.
6. Evidence Based Medicine Working Group. Evidence-based medicine -a new approach to teaching the practice of medicine-. JAMA. 1992. 268. pp.2420-2425.

<단행본>

1. 나승일.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교수법 가이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2. 전국한의과대학원전학교실. 유편황제내경. 대전. 주민출판사. 2005.
3.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의과대학학습목표·기초의학편. 서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2007.
4. Trisha Greenhalgh. How to read a paper·the basis of evidence-based medicine(3rd Edition). Oxford. Blackwell Publishing. 2006.

